

# ‘조스’ 개봉 50주년...블록버스터 시대 연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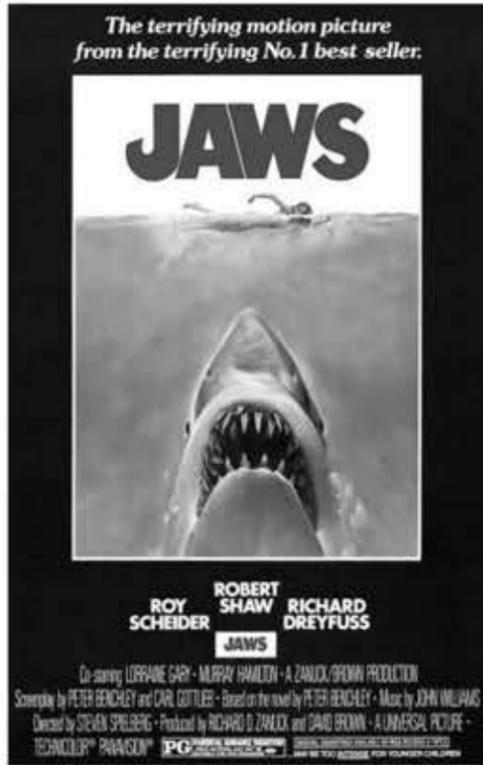
## 대규모 홍보·개봉·흥행 공식 제시...예술에서 수익으로 기운 전환점

항목	수치
개봉일	1975년 6월 20일
제작비(추정)	700만~ 900만 달러
러닝타임	2시간 4분
복미 첫 주말 흥행	706만 달러
복미 총 흥행	2억 6,726만 달러
해외 총 흥행	2억 1,065만 달러
전 세계 총 흥행	4억 7,792만 달러
물가조정 복미 흥행	11억 7,245만 달러(2019년 기준)
복미 추정 관객 수	1억 281만 5,970명
최대 상영관 수(1975)	675개
아카데미 수상·후보	3관왕(편집·음악·음향)·작품상 등 4개 부문
로튼 토메이토스 지수	신선도 97% · 관객점수 90%

‘대부(Godfather)’를 제치고 78일 만에 사상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했다.

‘조스’는 단순히 ‘블록버스터’라는 새로운 용어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이익과 예술성 사이에서 할리우드가 점점 더 이익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전환점을 상징한다. 이런 맥락에서 ‘조스’는 70년대 중반 할리우드가 현실 도피적 콘텐츠로 방향을 틀었다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당시 이미 ‘타워링’, ‘엑소시스트’, ‘스팅’, ‘샤프트’, ‘헤어비 라이드 어게인’, ‘프리비 앤 더 빈’,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 다수의 성공작들이 존재했다. ‘조스’는 이들보다 더한 흥행대작도 아니었고, 더 도피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영화적 완성도는 이들보다 뛰어났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 1975년 영화 '조스' 포스터. 사진=namu.wiki

대화시켰고, 고장이 잦았던 기계 상어는 오히려 편집자 버나 필즈의 빠른 컷과 결합해 더 실감나는 공포를 연출했다.

‘조스’는 ‘뉴 할리우드’를 종결시킨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절정을 장식한 작품이었다. 영화 후반부 쿼트의 보트 위에서 벌어지는 인간 대 자연의 전투는 과장 없이 자연스럽게 전개됐다. 작살 발사, 배의 구조가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 절창 속 대결, 쿼트의 죽음까지 모두 유연성과 필연성이 교차하는 현실적 흐름 속에서 연출됐다.

50년이 지난 지금, ‘조스’가 영화계에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진정한 ‘현실 도피’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활용해 관객이 자기 자신을 잠시 떠나게 만드는 감정적 해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스’

‘조스’는 ‘스타워즈(Star Wars)’와 함께 블록버스터 시대의 개막을 알렸으며, 대중문화 속 ‘현실 도피형 콘텐츠’의 지배를 시작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개봉 50주년을 맞은 지금, 이 두 작품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977년 개봉한 ‘스타워즈’는 영상 게임 같은 감각과 강력한 판타지 세계관을 통해 수세대에 걸친 중독적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의 ‘전부 판타지인 대중문화’의 기원을 제공했다. ‘반지의 제왕’과 ‘들펀’이 선구자였다면, 그 결정타는 ‘스타워즈’였다. 이 영화는 사람들이 하여금 현실이 아닌 세계에 살고 싶게 만들었고, 그 영향은 깊고 넓었다.

‘조스’는 어떨까. 1975년 6월 20일 개봉 당시 ‘조스’는 여름을 대표하는 팝콘 무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 영화의 진정한 혁신성은 그 배급 방식과 마케팅 전략에 있었다. 전국 464개 스크린에서 동시 개봉은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였고, 70만 달러를 들인 대대적인 TV 광고 캠페인은 영화 흥행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 결과,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조스’가 당시 ‘뉴 할리우드’의 미학과 맥을 같이했다는 사실이다. 젊은 스티븐 스피버그는 이 영화에 다큐멘터리적 현실감을 녹여냈고, 이는 로버트 알트만의 영향 아래 인물 간 동시다발적 대화, 현장감 있는 음향, 엑스트라 같은 많은 엑스트라 연출 등으로 구현되었다. 마틴 브로디(로이 사이데)의 집에서 아침을 맞는 장면은 평범한 가정의 일상 속 현실감을 담아냈다.

심지어 상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조차도 브로디가 뒤 돌아 대화 중일 때 갑자기 상어가 등장함으로써, 전형적인 공포 연출 대신 인간적 반응과 생동감을 부여했다. 스피버그는 괴물조차 하나의 존재로서 다뤘고, 이는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영화적 장치였다.

‘조스’는 공포영화, 음모 스릴러, 현대판 ‘모비딕’, 세 남자의 갈등 드라마, 놀이기구 같은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조합체였다. 특히 리 피에로가 연기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 역할은 단 한 장면만으로도 깊은 현실감을 전달했다. 물 위에서 촬영된 바다 장면들은 불안감을 극

는 판타지를 보여준 ‘스타워즈’와는 반대편에 위치하며, 영화의 본질적 사명을 되새기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거울을 들이밀고, 우리가 그것을 경이롭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9	2	4	1	3	6	5	8	7
1	3	5	7	4	8	2	6	9
6	7	8	9	2	5	1	3	4
4	6	3	2	7	1	8	9	5
5	9	7	8	6	4	3	1	2
8	1	2	5	9	3	7	4	6
2	4	1	6	8	7	9	5	3
7	5	6	3	1	9	4	2	8
3	8	9	4	5	2	6	7	1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JUNGHOOON KIM**  
 E.9923003@gmail.com  
 C.714.335.8256  
 카톡 ID: Junghoon123

# 프리미어 텍스 그룹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